

피어라 공항마을

지리산둘레길 공항마을 새참사랑방

2019년 공항마을 기록

새참사랑방, 들꽃, 공항마을 사진전, 들꽃 이야기,
이호신 화백의 '지리산둘레길 그림편지' 전시회, 교류전시회 등



공항마을 기억과 꿈 展

2019년 지리산둘레길 공항마을 새참사랑방 1차 전시회

2019. 08. 19. ~ 09. 16.

문의 : 숲길 055.884.0850

A man with glasses and a plaid shirt is shown from the chest up, looking slightly to his right and speaking. His hands are clasped in front of him. The background is bright and out of focus, suggesting an outdoor setting.

안녕하세요~!

지리산둘레길 위태~하동호 구간에 있는
궁항마을 이장, 조항래입니다.

우리 궁항마을은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유물 사업에 선정되어 마을회관에
'새참사랑방'도 만들고 재미나는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진행하여 마을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옥종면 아니 하동군에서 제일 폼나고 살기 재미나는 마을이
궁항마을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메밀꽃등 꽃밭을 조성해 둘레길을 걷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마을로 마을분들에게는 활기넘치는 마을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옛사진으로 열린 사진전 (궁항마을 기억과 꿈 展)은 마을의 추억과 역사를 돌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을 옥상에 올라가면 옛 시절 사진 들여다보는 맛에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두 번째 전시회 '지리산둘레길 들꽃 사진展'은 주변에서 자주 보았던 들꽃들이라
더욱 더 반갑고 뿌듯해 주변사람들에게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이호신 화백의 '지리산둘레길 그림편지展'도 궁항마을을 멋지게 홍보해주고 있어 너무나 행복
합니다.

저희 궁항마을이 둘레길을 걷는 이들에게 휴식공간이 되고 마을분들에게는 사랑방이 되어 더
할나야 없이 기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 오셨으면 합
니다.

지리산둘레길은 웃음꽃이 활짝 피고 정이 넘치는 고향길입니다.

마을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오는 분들을 늘 반기고 보듬어 줄 것입니다. '궁항
마을'에서 '정과 고향'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책자는 2019년 궁항마을에서 진행된 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년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차

공항마을

- 공항마을 소개 04

지리산둘레길

- 지리산둘레길은 08
- 지리산둘레길 위태-하동호구간 15

새참사랑방

- 새참사랑방은 22
 - 1차전시 : 공항마을의 기억과 꿈 24
 - 2차전시 : 들꽃이야기 30
 - 3차전시 : 지리산둘레길 그림편지 36
 - 4차전시 : 하동사람 풍경 사진전 39
-

제작 : 사단법인 숲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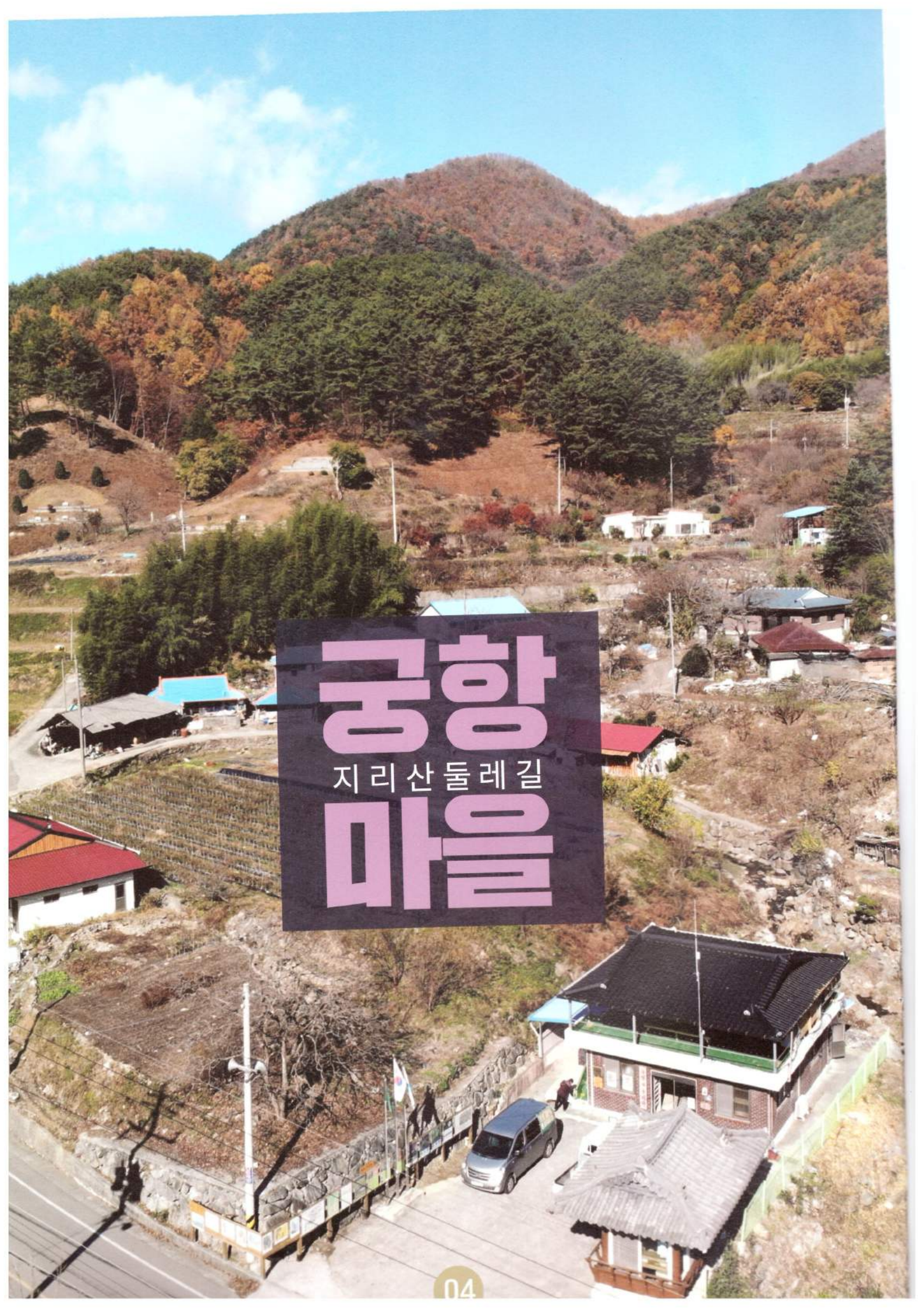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52-4

전화번호 : 055-884-0850

홈페이지 : www.trail.or.kr

메일 : trail@trail.or.kr





궁항

지리산둘레길

마을



궁항마을은

궁항은 지형이 활목의 형태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궁항리 안쪽에 있는 안몰마을 앞에 활촉산이라는 지명이 있어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또 궁항을 활로 연상하여 상이리의 장군전설과 연관시켜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장군이 구비해야 할 것으로

- 1)중이리의 가마솥(가마소), 칼(칼남재)
- 2)상이리의 구시 즉 구유, 몰랑골, 무군터(武軍), 연병장(마당재)
- 3)궁항리의 활(弓) 등등

여러 가지를 들어서 고을 일대가 소위 장군(將軍)의 활동 무대라고 갖추어 전하기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고을의 지명을 슬기롭게 작명하였다는 점과 풍수설이 따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율에서 오대주산에 산길을 구불구불 걷다보면 궁항에 다다른다. 궁항에서 도로를 따라 안쪽으로 안몰 점터에는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철광맥이 있어 쇠를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들레길을 걷다보면 궁항담과 가을에는 아름다운 오대산의 가을단풍이 볼거리이다.

궁항 오율(궁항리) 갈성(위태리) 회신(회신리)를 거쳐 횡천을 경유하는 도로가 있고 소로길을 통해 양이터재를 넘으면 청암 상이리와 나본에 이르고 웅달에서 넘으면 상이리 구정기 마을에 이르고 빙이터를 지나 질매재 열두모퉁이를 내려가면 청암 목계리 장재마을에 이른다. 마을로 새터, 안몰, 빙이터, 양이터 등의 여러 작은마을들이 있다.



청암 / 목계

높은터

쇠끝봉

장재터

점동마을

폭포

성지사

열두모탕이

빙이터

영광재

봉화사

내촌마을 (안마을)

길마재

공항삼거리

새터마을

뒷골마을

공항마을회관 / 새참사랑방

구) 공항내촌분교

양이터마을

음지새터

양지새터

청암 나본

오울 / 옥종

공항마을 그림지도



지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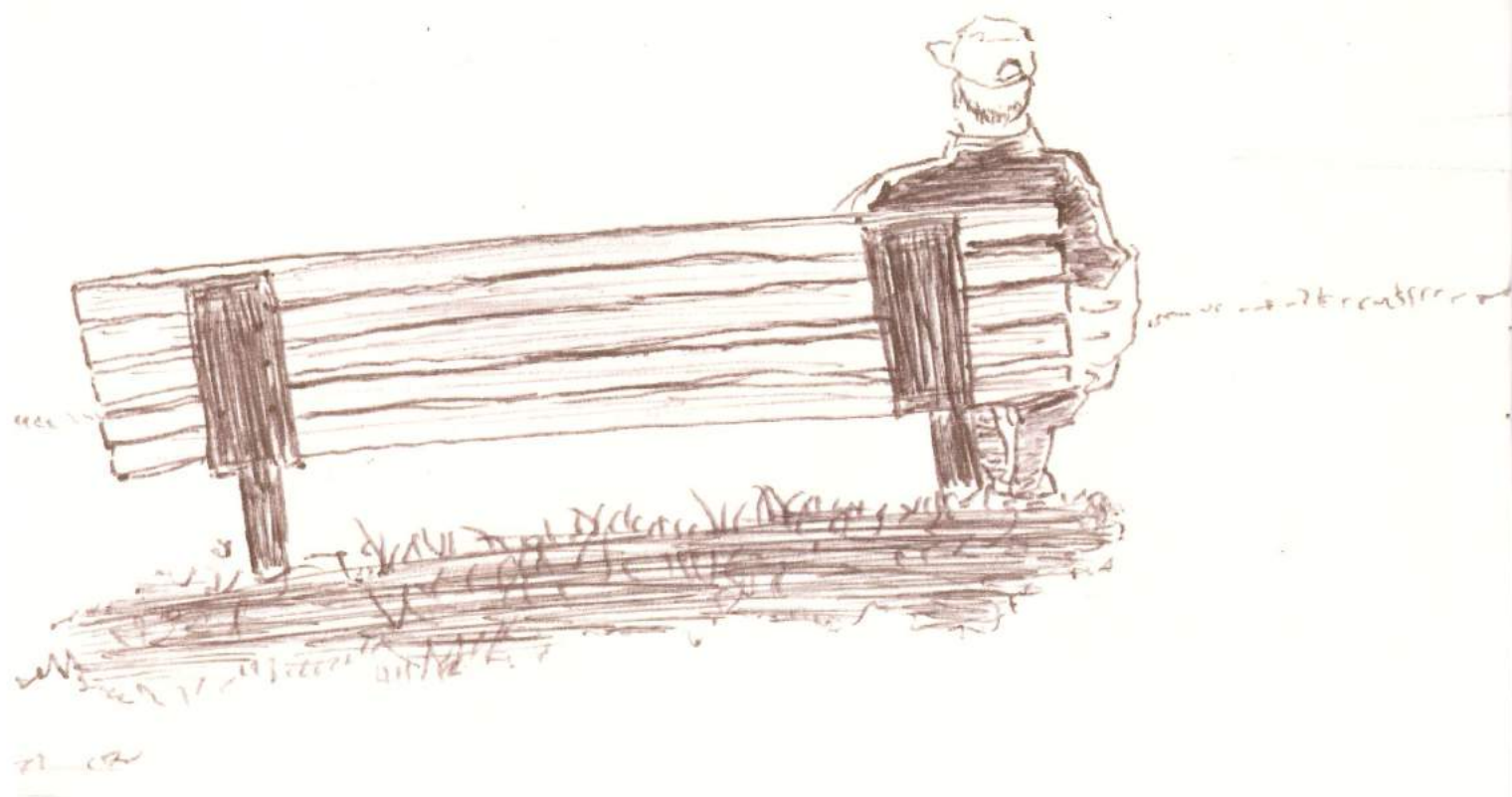
생명 평화

둘레길

지리산길둘레길은
지리산 둘레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21개읍면 120여개 마을을 잇는
295km의 국내 최초 장거리 도보길이다.

지리산둘레길은 일상이다.

‘지리산둘레길’에는
잊어버린 단순 소박한 일상이 살아 숨 쉰다.





‘지리산둘레길’에는
잊어버린 단순 소박한 일상이 살아 숨 쉰다.

날마다 영킨 실타래보다 더 복잡한 날들. 도시, 우리의 삶은 그곳에 맞
춰져 있다. 산업화, 도시화, 혹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이룬 거대한
성과들 - 전기, 기차, 자동차, 컴퓨터, 인공지능 -
그 이면에 그림자로 묻힌 것들 생명, 생태, 자연, 우주, 그리고 나...

홀쩍 ‘지리산둘레길’을 걷다 보면
길 위에 마을이 자연스럽다.



농토가 있고, 농부가 움직이며,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상을 본다.





봄이면 파릇한 새 생명의 연두가 초록이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함초롬 피는 들꽃 하나 내 마음을 잡는다. 무리를 지어 걷는 이들에게 매화향 흩날리고, 산벚꽃, 산목련이 마음을 빼앗아간다. 한 여름 아득한 곳에서 들리는 새 소리, 개울물 흐르는 소리 지친 심신을 달랜다. 초록이 물든 날, 개울을 건너려면 알록달록 단풍이 조각배가 되어 반기고, 융단이 되어 발아래 가을 소리를 들려준다. 눈 덮힌 소나무 한 그루 발걸음 멈추게 하고 흑가다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을 보는 정겨움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이 길에서는 이른 아침 나락 한 톨, 풀잎 하나, 나무 가지 끝에 맺힌 영롱한 이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해거름 지친 농부가 마을로 들어가는 발길에 내 발걸음을 보태며 하루를 내려놓는 일이 일상임을 깨닫게 한다.

문득 그리워지면 지리산둘레길의 일상에
발걸음을 보태보자



지리산둘레길 위태-하동호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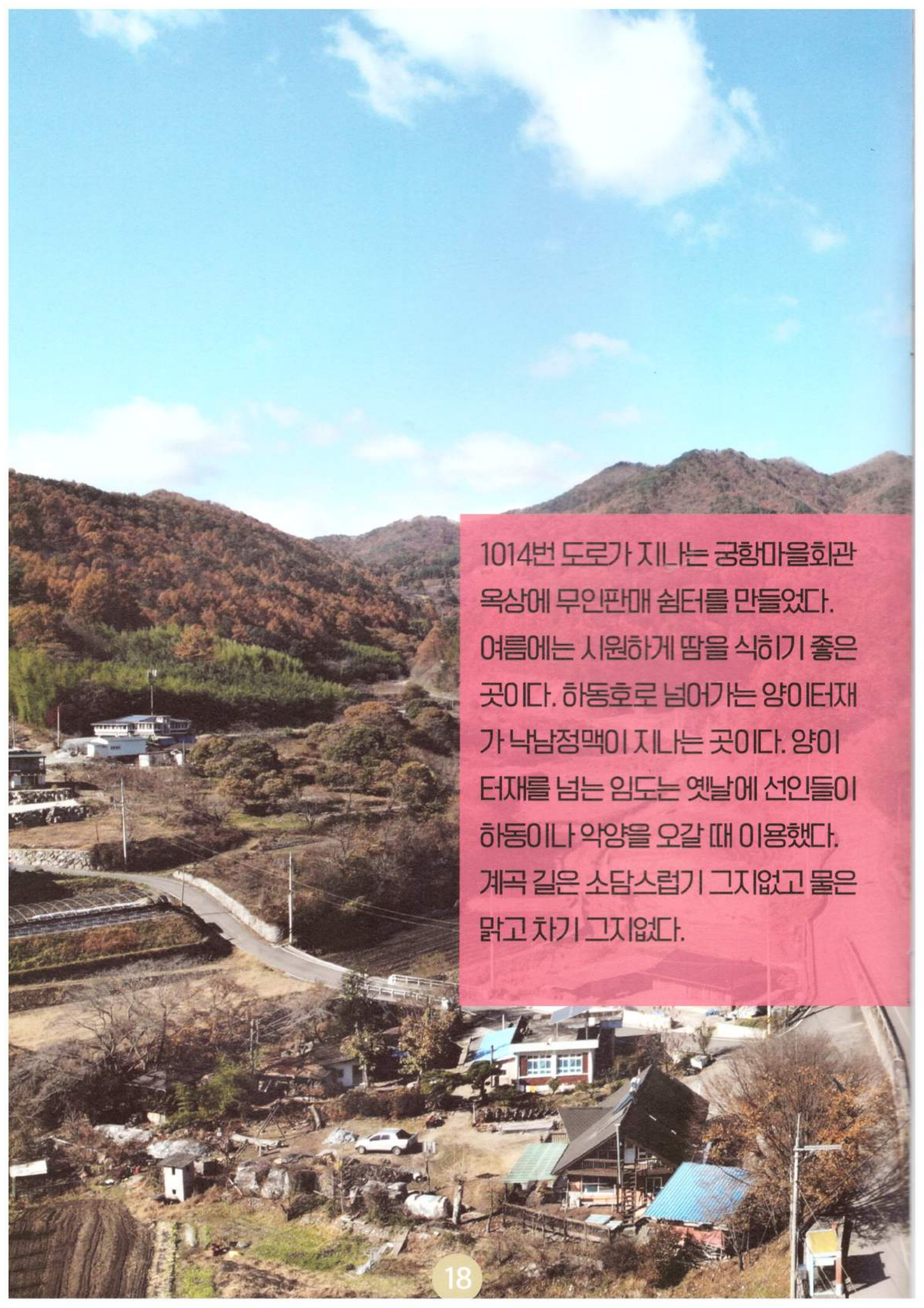
지리산의 남쪽 지리산 남쪽을 걷는다




지리산의 남쪽 길을 걷는다. 수계는 낙동강 물줄기를 벗어나 섬진강 물줄기를 만나는 곳이다. 산줄기로는 낙남정맥과 횡천지맥이다. 낙남정맥은 남한의 9정맥 중 백두대간 지리산 구간에서 가지를 치는 정맥이다. 그러니까 지리산 영산봉에서 갈라지는 정맥을 말한다.



위태에서 지네재를 넘어가면 운치 있는 대나무밭 길이다. 대나무밭을 빠져나오면 백궁선원 안내판이 있다. 예전의 오대사이자 수정사였는데, 지금은 백궁선원이라는 국선도 수련장이 들어섰으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진양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오대사가 기록되어 있다. 모두 86칸인 사찰을 1123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129년 10월에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1014번 도로가 지나는 궁항마을회관
옥상에 무인판매 쉼터를 만들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땀을 식히기 좋은
곳이다. 하동호로 넘어가는 양이터재
가 낙남정맥이 지나는 곳이다. 양이
터재를 넘는 임도는 옛날에 선인들이
하동이나 악양을 오갈 때 이용했다.
계곡 길은 소담스럽기 그지없고 물은
맑고 차기 그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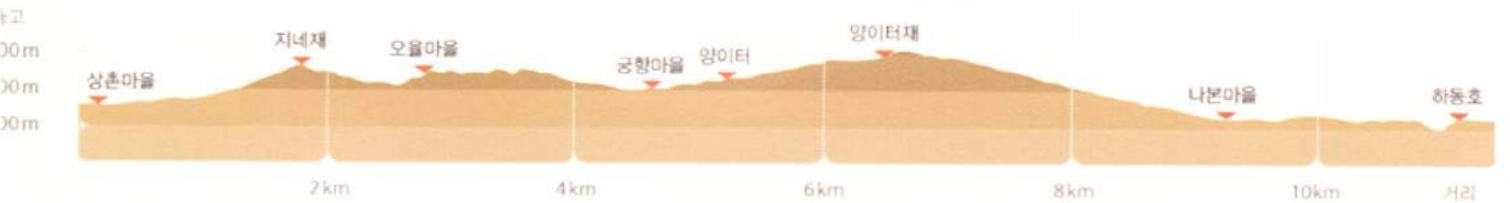


하동호를 끼고 나본마을과 상이리가 있다. 나본마을은 하동호를 배경으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상이리는 심산유곡의 산골마을이다. 골짜기는 깊고 맑으며 기암괴석이 한 데 어우러져 있다. 하동호를 끼고 도는 도로에 설치된 산책로를 따라 걷는다.

지리산둘레길 위태-하동호




위태-하동호 11.5km
 위태(상촌) - 지네재(1.9km) - 오을마을(0.6km) - 공항마을(2.2km) - 양이터재(2.2km) - 나본마을(2.6km) - 하동호(2km)



주요정보

위태 시작점 위태마을 버스정류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783
 하동호 시작점 하동호 관리사무소 경남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산 219-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와 하동군 청암면 종이리 하동호를 잇는 11.5km의 지리산둘레길. 위태-하동호구간은 낙동강 수계권에서 식생이 다양한 섬진강 수계권인 지리산 남쪽을 걷는 길이다. 지리산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물들이 북쪽은 낙동강이 되고 남쪽은 섬진강이 된다. 걷다가 만나는 숲의 모습도 다르다. 남명조식선생과 지리산을 유람하는 선비들이 자주찾았던 오대사터가 있는 백궁선원도 스친다. 지리산 자락의 큰 댐인 하동호도 만난다. 2015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사)백두대간숲연구소가 '아름다운 숲길'로 선택한 구간이다



지리산둘레길 위태-하동호 구간 대표 들꽃 **하늘말나리**

하늘말나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이고 부엽질이 많은 토양이나 모래 성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란다. 꽃이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말나리는 나리 식물 중에 키가 크다는 이유로 접두어 '말'이 붙었다. 지리산둘레길 위태-하동호 구간의 대표적인 들꽃 중 하나이다. 7월경에 핀다.



새 참

공 항 마 을

사랑방

공항마을은 2019년 경상남도 문화우물사업에 선정되어
 '지리산둘레길 공항마을 새참사랑방'을 조성하였다.
 '새참사랑방'은 마을주민과 지리산둘레길 이용객이 함께 사용하는
 문화가 있는 쉼터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반가워요~! “ 새참 사랑방 ”



'새참 사랑방'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무인심러로 지리산 둘레길을 걸다가 만나는 반가운 사랑방입니다. 마을을 방문해 직접 간단한 음식도 만들어 먹고 담소도 나누는 새참 사랑방은 이용객들의 사랑과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리산둘레길 하동구간에는 두 곳의 새참 사랑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1호점은 삼화실 - 대죽 구간의 서당마을,
- 2호점은 위태 - 하동호 구간의 궁항마을입니다.

1호점 서당마을의 새참 사랑방은 무인갤러리 주막으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 2호점 궁항마을의 새참 사랑방도 2019년 마을회관 옥상을 꾸며 이용객의 입소문으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새참사랑방 1차 전시
 공항마을의 기억과 꿈



생활권 문화공동체

**문화
우물**

2019년 문화우물사업
 지리산둘레길 공항마을
 새참사랑방



공항마을 기억과 꿈 展

2019년 지리산둘레길 공항마을 새참사랑방 1차 전시회
 2019. 08. 19. ~ 09. 16.
 문의 : 숲길 055. 884. 0850

주최:  경상남도 GYEONGNAM

주관: 공항마을, 숲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협력:  치매안심센터
 경남남도 하동군

1차 전시는 공항마을 새참사랑방 오픈식과 함께 시작했다. 마을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옛 사진을 연도별, 사연별로 정리하여 지난 마을의 모습과 풍습을 담았으며 '하동군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마을주민들의 창작물과 마을분들의 꿈을 표현한 일러스트를 함께 전시하였다.



2019년 8월 19일 지리산둘레길 공항마을 새참사랑방 오픈식 및 1차 전시회 모습

그리운 시절





옛날 결혼식





위 사진이외에도 많은 옛날 사진이 새참사랑방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꽃피는
궁항마을

2019. 10.22-

들꽃이야기

궁항마을에서 조성한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꽃밭 그리고 둘레길 들꽃
모니터링단의 위태-하동호구간의
들꽃이야기

새참사랑방 2차 전시
꽃피는 궁항마을
들꽃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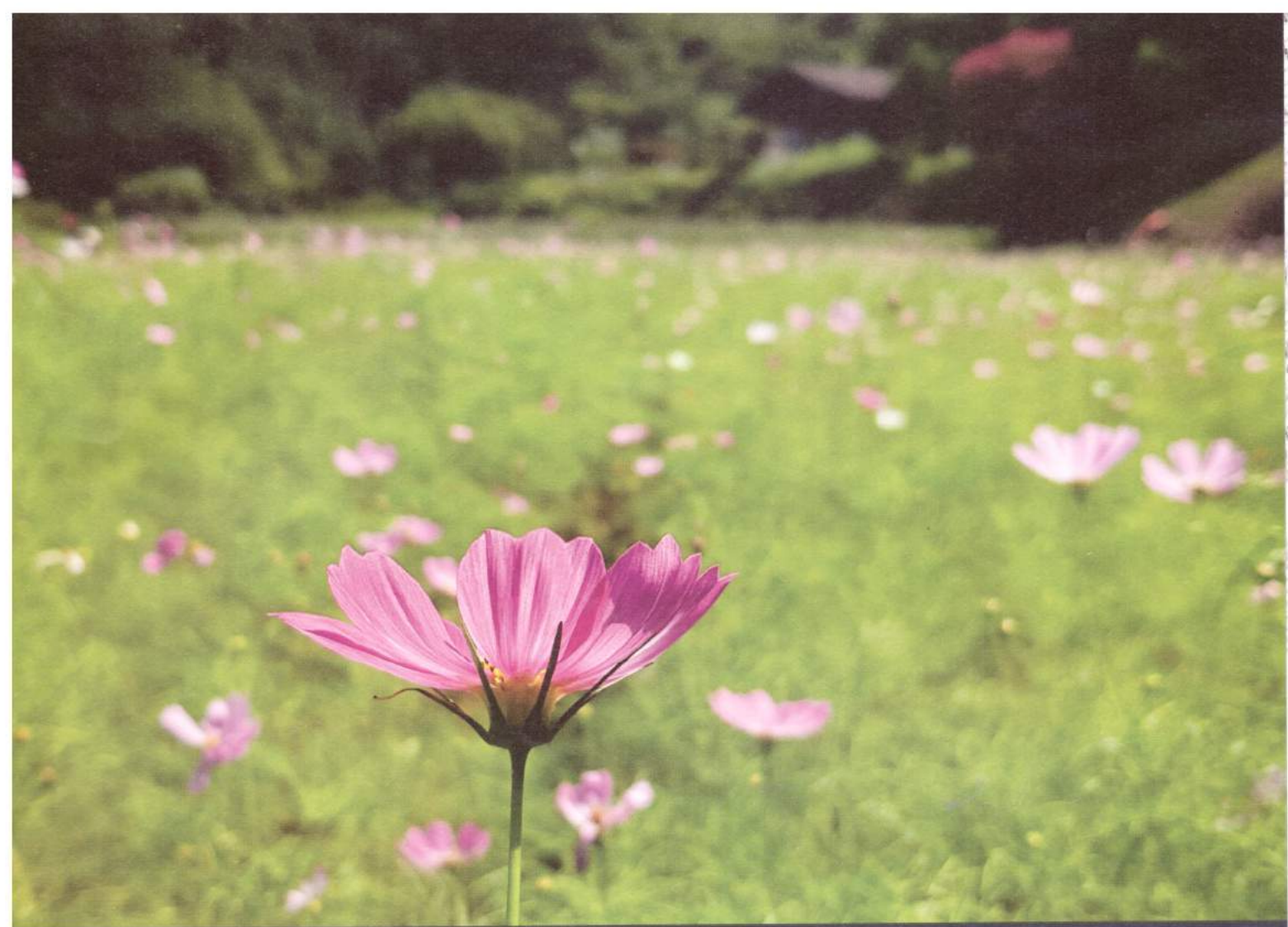
주최: 경상남도
GYEONGSANGNAM

주관: 궁항마을, 숲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Gyeongnam Culture and Arts Promotion

협력: P&G

궁항마을 새참사랑방 2차 전시는 궁항마을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궁항마을이 위치한 지리산둘레길 위태-하동호 구간의 들꽃 사진과 마을에서 가꾼 휴경지 꽃밭, 마을주민이 직접 만든 꽃 손수건등을 전시하였다. 궁항마을은 2019년 문화유산사업과 숲길과 p&G 다우니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리산둘레길 들꽃 보호캠페인'의 들꽃마을 선정지이다.



지리산둘레길 들꽃마을

궁항마을은 숲길과 P&G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리산둘레길 들꽃보호 캠페인]사업의 들꽃마을로 선정되어 휴경지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메밀꽃밭을 만들었다.





마을 꽃밭을 만드는 과정



마을 꽃밭과 지리산둘레길 이용객



공항마을 들꽃이야기 전시회 풍경

3월

복수초

이른 봄에 꽃이 피는 복수초는 그 특징 때문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꽃이 황금색 잔처럼 생겼다고 측금잔화(側金盞花)라고도 부르고, 눈 속에서 꽃이 핀다 하여 설연화(雪蓮花), 얼음 사이에서 꽃이 핀다고 하여 빙리화(氷里花)나 얼음꽃, 설날에 꽃이 핀다고 하여 원일초(元日草)라고도 한다.

또한, 복수초(福壽草)는 꽃말도 다양하다. 복(福)과 장수(壽)를 의미하는 한자어로 꽃말은 '영원한 행복', '슬픈 추억'이다. 일본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고 장수하라'는 의미로 복수초를 선물하기도 한다.

봄까치(개불알풀)

까치가 놀러나온 잔디밭 옆에서 가만히 나를 부르는 봄까치꽃 하도 작아서 눈에 먼저 띄는 꽃 어디 숨어 있었니? 언제 피었니? 반가워서 큰소리로 내가 말을 건네면 어떻게 대답할까 부끄러워 하늘색 얼굴이 더 앓아지는 꽃 잊었던 네 이름을 찾아 내가 기뻐던 봄 노래처럼 다시 불러보는 너, 봄까치꽃
잊혀져도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네

- 이해인

괴불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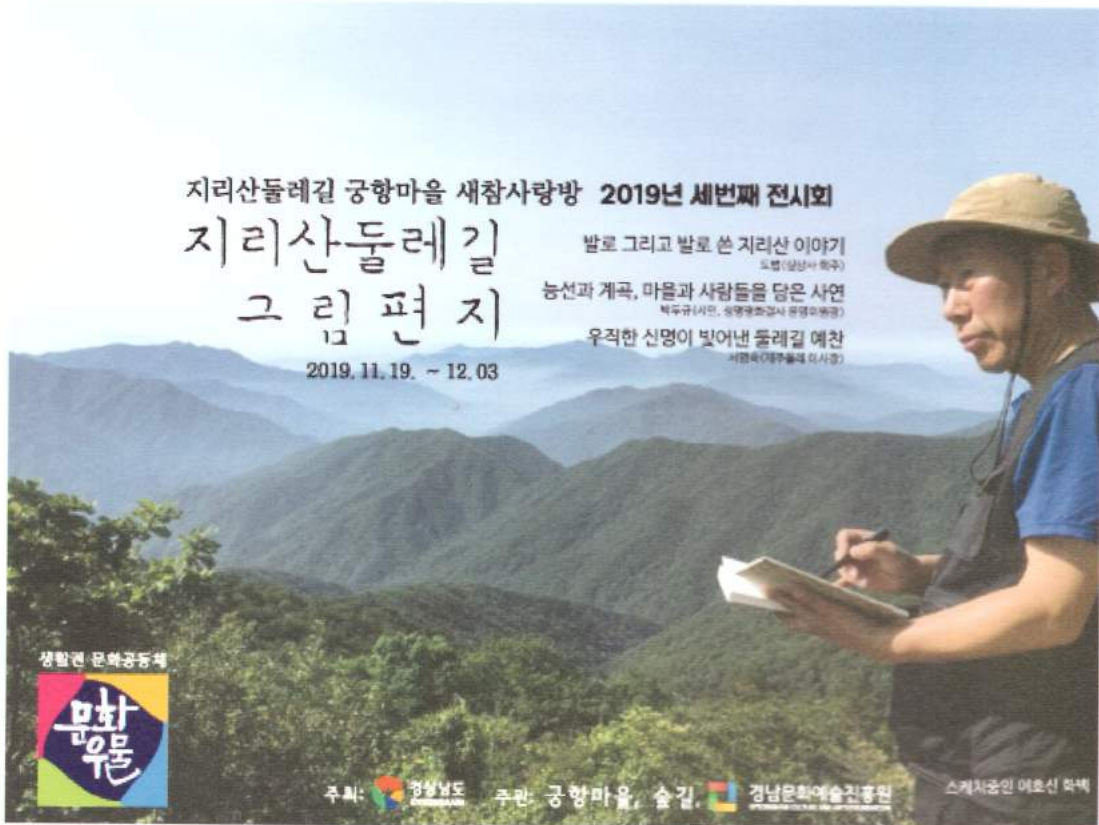
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들꽃으로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핀다. 어린아이가 주머니 끈 끝에 차는 세모 모양의 조그만 노리개를 닮았다 해서 괴불주머니라 불린다. 괴불주머니의 근(根)을 菊花黃連(국화황련)이라 하며 약용하기도 한다.

생강나무 꽃

산수유와 혼동하기 쉬운 생강나무 노란꽃 생강나무는 상처를 내면 알싸한 생강냄새가 난다. 산수유는 생강냄새가 나지 않는다. 김유정의 [동백꽃]에서 나오는 '알싸한 동백꽃 향기'가 생강나무 이야기이다. 강원도에서는 생강나무꽃을 동백꽃이라고도 한다.

전시 한컷

새참사랑방 3차 전시
지리산둘레길
그림편지展



지리산둘레길 공항마을 새참사랑방 2019년 세번째 전시회

지리산둘레길
그림편지

2019. 11. 19. ~ 12. 03

발로 그리고 발로 쓴 지리산 이야기
도봉(상남사 복국)
농선과 계곡, 마을과 사람들을 담은 사연
복두규(사민, 생명래(호)사 풍명(우)영)
우직한 신명이 빛어낸 둘레길 예찬
서명숙(계주물대 의사장)

생활권 문화공동체



주최: 경상남도

주관: 공항마을, 숲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스케치중인 이호신 화백

지리산둘레길 공항마을 새참사랑방(마을회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지리산둘레길
그림편지展

지리산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 5개 시·군
295km를 연결하여
자기성찰과 걷는 문화를 제언한
우리나라 대표 숲길입니다.

이호신 화백과 이상윤 숲길 상임이사
두 사람이 2016.7년 24개월 동안
지리산둘레길 2구간을 직접 걸으며 그리고 쓴
지리산의 풍경과 그곳에 깃들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일곱년 삶의 터전을 담은

지리산둘레길 그림편지



공항마을 새참사랑방 3차 전시는 지리산둘레길 전체구간을 걸으면서 그린 이호신 화백의 '지리산둘레길 그림편지'로 진행하였다.

전체 140여점 중 하동호-위태구간을 중심으로 26개의 작품을 전시



공항마을 지리산둘레길 그림편지 전시회 풍경



새참사랑방
궁항마을

새참사랑방, 궁항마을 60x46cm, 한지에 수묵채색, 2016



하동양이재에서 그리고 산다
마음에 새겨진 길을 걷습니다
산은 자유롭게 한대고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진리가

양이터재에서 60x46cm, 한지에 수묵채색,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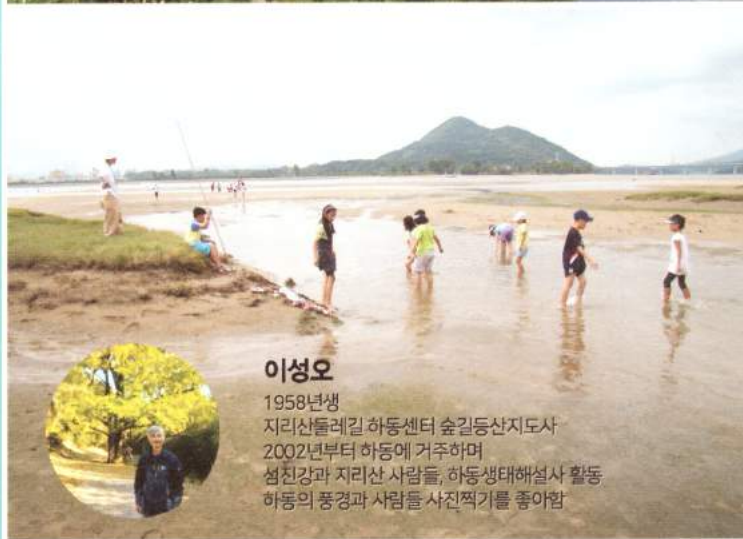
지리산둘레길
새참사랑방
교류전시회

하동 사람 풍경 사진전

우리동네
보통예술가
하동 사랑과 희망

전시기간
2019.12.14
~ 12.30

장소
지리산둘레길
새참사랑방
서당, 궁항마을



이성오

1958년생
지리산둘레길 하동센터 숲길등산지도사
2002년부터 하동에 거주하며
섬진강과 지리산 사람들, 하동생태해설사 활동
하동의 풍경과 사람들 사진찍기를 좋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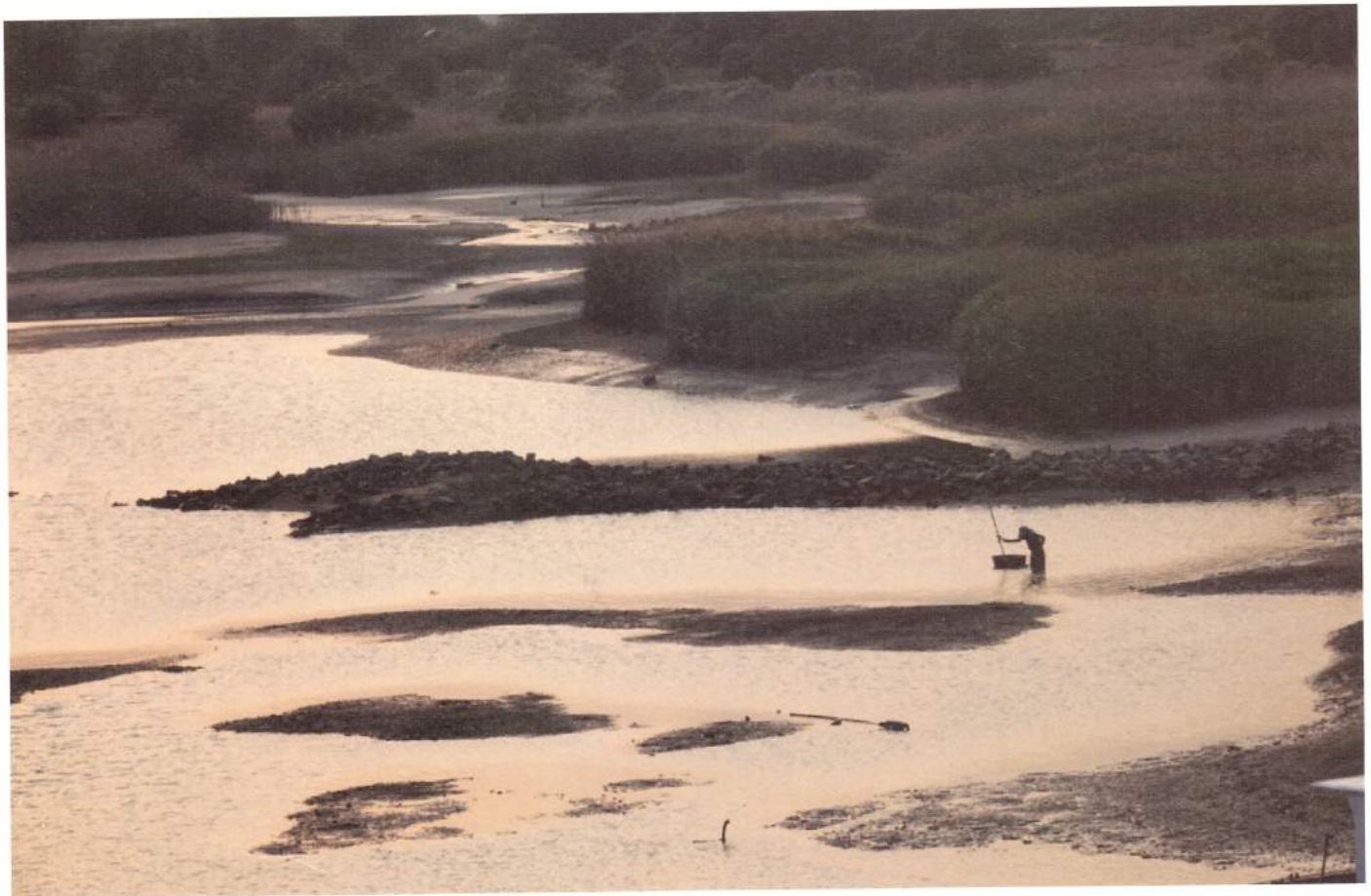
주최 : 숲길, 궁항마을, 서당마을 / 지원 :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문의 : 지리산둘레길 하동센터 055-884-0854

새참사랑방 4차 전시회
새참사랑방
교류전시회

새참사랑방 4차 전시는 교류전시회 [하동/사람/풍경 사진전]으로 진행
하동군에 있는 서당마을 새참사랑방과 교류하는 전시로 1차로 서당마을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이후 궁항마을 새참사랑방에서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시내용은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우리동네 보통예술가의 사진작품이다



교류전시회 모습과 참여 작가



하동 / 사람 / 풍경 / 사진전 中



공항마을

소소한 꿈

소박하고
소중한

“중국여행 또 가고 싶다
신랑과 오래 건강하게 살자”

“사랑하던 여자친구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어데서 살고 있을까”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나는 훌륭한 농부가
되고 싶었다”

“나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

“나는 유치원 원장님이 되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꼭 이루고 싶다”

“나는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야 겠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후회없는 삶을 살았다” “박군 봉사는 인생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란다”
 “이 세상에 와서 건강히 살다가 천국 미국으로 가고 싶다”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줄 모르게 가는것이 소원이다”
 “사랑하는 진규군 무슨꿈이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편안하고 좋은 집을 갖고 살고 싶고 살고 싶다” “나는 행복하다 가족들이 많아서...
 “나는 건강하고 잘 살고 싶었다” “나는 어려서 가수가 되고 싶었다 여행도 하고 싶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한다
 “보면 볼수록 예쁜 김보라 치매교육이 장기적으로 이어 갔으면 바라는 바임 계속이어지기를 바란다” “건강하세요 치매걸리지 말자”
 “건강하게 가족들과 즐겁게 살기, 유럽여행가기 * 요망사항 치매교육 1년연장하기” “몸 건강하고 기운나게 살자” “시집가고 싶다 건강하게 살
 “남은 인생살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집짓는 목수” “건강, 일하는 것” “가족화목 건강” “살기좋은 마을 희망이 있는 마을”
 “가족건강 마을발전 앞으로 남북통일 이산가족 상봉희망” “꽃마을 조성 관광 활성화” “가족건강 부락화목 잠자듯이 하늘로”
 “자식들이 잘 살았으면 잠결에 하늘로” “자식 잘 되길, 마을 화목하고”



새참사랑방'에 부쳐

최비성 (지리산둘레길 하동센터장)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에 활기를 불어 넣고 나눔과 배려를 공유하자~!

“건다가 힘들고 배도 고파 난감했는데 새참사랑방을 만나 너무 감사했어요”

“시골마을에 문화공간이 생겨 부담없이 담소도 나누고 한잔해요. 컵라면도 오랜만에 먹으니 맛나네요”

“후원함에 얼마 안되지만 마을기금이 모여 이 다음에 마을 잔치 해야지...^^*”

“안녕하세요. 새참사랑방에 손님들 많이 찾나요? 어머님들 편찮으신데는 없나요?”

“밥 먹고 가요. 둘레길 때문에 안심심해...”

새참사랑방 덕분에 자연스럽게 마을에 생기가 돈다.

지리산둘레길 하동센터 선생님들도 본의 아니게 마을을 자주 들여다본다.

자주 찾아보니 낯도 익고 정이 든다.

올해는 문화유물사업의 일환으로 궁항마을의 문턱이 닳도록 수시로 마을과 접선했다. 기분좋은 만남이 이어지고 한술밥을 먹으며 추억을 차곡차곡 쌓았다.

낡은 앨범을 뒤져 80넘은 어머니의 새색시 얼굴도 찾고 철수 영식이 콧물 흘리던 시절 품잡는 모습도 찾아내고... 손가락이 꼬부라지도록 뽀얀 손수건에 풀꽃도 물들이고...

수시로 단체사진도 찍고 입가에 미소가 끊이질 않았다.

마을회관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모두의 발걸음에 해바라기를 그려넣었다. 노랗게 노랗게 환하게 환하게 나눔이 번지고 있다.

내년이 기대된다. 어떤 모습의 꽃들이 저마다의 맘속에 활짝 필까?

“피어라 궁항마을, 피어라 새참사랑방~!”

생활권 문화공동체



지리산둘레길
궁항마을 새참사랑방